



기념사

-제7회 기술사의 날-

존경하는 정운 과학기술부차관님.

내외 귀빈, 그리고 기술사와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제7회 기술사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3일 뒤에 새 정부 출범으로 인계인수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유공 기술사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위해 참석하신 정운 과학기술부차관님께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부 포상을 받는 영예로운 기술사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일본 기술사로서 정부포상을 수상하시는 나까야마 테루야 한일기술사회의 일본측 실행위원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기술사 여러분!

우리는 같고 닮은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민소득 2만 불 고지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새로운 기술로 포장된 플랜트 건설산업의 해외진출로 재도약하였습니다. 플랜트 건설산업은 기술사들이 핵심 기술인력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평가기관으로 유명한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기술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40여 년 동안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정책을 펼 성과인 것입니다. 우리 기술사들은 40여 년 전 과학기술 황무지에서부터 오늘의 눈부신 성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 왔으며, 오늘날 글로벌한 환경에서 새로운 다짐과 분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부와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 간 기술사 상호 인정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술사법에 명문화 했습니다. 각 부처가 관장하는 각종 사업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꾸준히 넓혀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기술사 기준에 맞게 보완된 제도에 따라 등록된 국제기술사는 세계 어느 나라 기술사보다도 우수성과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술사 여러분!

올해는 국제기준에 따라 도입된 기술사 교육훈련이 본격화하는 해입니다. 우리 기술사는 이공계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이자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적으로 기술사에 대한 계속 교육은 정착되었고, 국내 다른 전문가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도 계속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기술사 계속교육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여러분은 교육·훈련을 새로운 지식 흡수와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술사회는 미흡한 제도 보완과 기술사 위상제고를 꾸준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기술사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해주고 지역구에도 이공계 공천을 많이 해 달라고 회원 2,3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주요 정당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술사제도 바로세우기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와 2월 14일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측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는 기술사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 수상을 분발의 계기로 삼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이 정 만